

사설

설득하고 협상하는 학생자치

오는 2학기부터 학점포기제가 전 교과목 대상으로 확대된다. 일반학과 기준 7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최대 6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지난 4월 취재 당시 양캠 총학의 학점지우개 도입에 관해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학교의 입장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번 결과에서 눈여겨볼 점은 제도 변화 자체보다 과정에 있다. 총학은 설문을 진행해 3,822명의 재학생 의견을 모으고, 제도가 성실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낮은 성적을 만회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학교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성적 구간별 의견을 분석했다. 주관식 응답까지 담은 30쪽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어 학교에 전달하기도 했다.

출범 당시 목표했던 ‘학점지우개’라는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학점포기제를 확대하는 방식을 택한 것도 행정·전산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 도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단순히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가 우려하는 지점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근거와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확대된 학점포기제가 시행되면 포기한 과목의 재수강이 가능해지고, 필수·인기과목의 수강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캠 총학생회장 역시 이를 “충분히 합당한 우려”라고 인정하며 2학기 동안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제도를 관철한 뒤 그 부작용까지 점검하는 것이 제도 변화를 완성하는 다음 과제다.

이번 학점포기제 확대는 학생들의 요구를 구체적인 근거로 만들고 학교의 우려에 대응하는 과정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

음을 보여줬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을 다른 사안에서도 이어가는 것이다.

총학 임기는 한 해에 그치지만 학사제도와 등록금,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내내 영향을 미친다. 학점포기제 확대가 현재 재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면, 다전공 의무화는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의 대학생활까지 좌우할 문제다. 아직 큰 틀만 마련된 다전공 의무이수제에 대한 학생 사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학교에 전달해야 한다. 특정 학과 쏠림 현상에 대비해 사전 수요 예측과 충분한 준비를 요구하는 것도 총학의 몫이다.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총학은 이미 등록금 협상 대응 TF를 꾸리고 학무부총장 정기협의체와 재정운용설명회 일정을 예고했다. 오는 9월 총장과의 대화

에서는 등록금 대원칙 수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것은 그 구조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인상에 대한 찬반을 정하기보다, 학교가 제시하는 인상 근거와 재정 운용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편성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학생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학점포기제에서 보여준 좋은 선례가 다전공 의무화와 등록금 협상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요구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교의 논리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협상하는 것. 단기적인 공약 이행을 넘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총학이 보여줘야 할 학생자치의 모습이다.

세시봉

존중의 방식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호프’가 훌륭하다는 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영화라는 것은 당신의 의견입니다.”

호프에 별점 4점을 매겼다가 악플과 조롱에 시달리던 한 평론가가 남긴 말이다. 평소라면 눈길도 안 줬을 영화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대체 얼마나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이길래 이렇게까지 화제인가 싶었다.

뜬금없이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누군가는 올해 최고의 영화라며 N차 관람까지 나섰고, 누군가는 340만 관객을 넘긴 지금까지도 혹평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관람평을 찾아볼수록 정작 눈에 들어온 건 영화 내용이 아니라 대댓글이었다. 좋았다는 사람에게는 ‘영화를 볼 줄 모른다’는 조롱이, 별로였다는 사람에게는 ‘평론가도 좋다는데 네가 뭔데’라는 비아냥이 달렸다. 심지어는 ‘호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병원에 가라’는 댓글까지 봤다. 댓글의 대부분은 영화가 아니라 서로의 취향을 헐뜯는 말 뿐이었다. 정작 영화 내용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관람평을 봤음에도 나는 지금까지도 ‘호프’가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영화를 두 번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한 번은 남의 시선을 따른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관객 10명 중 6명(60.2%)이 타인의 평점과 리뷰를 참고해 영화를 고른다고 답했다. 정답을 확인하듯 관람평에 의존하는 습관이 갖는 것이다. 그 다음에야 내 취향을 들여다보고 진짜 결정을 내린다. 이때 누군가에게 지루했던 장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금을 울리는 명 장면이 된다.

취향에는 틀림이 없다. 단지 다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타인의 감상을 오답 처리하는 일에 열을 올릴까. 결국 영화를 본 사람은 나다. 스크린 앞에 앉아 두 시간을 견딘 것도 어느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낀 것도 나의 몫이다. 그러니 각양각색의 감상이 존재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제는 내 감상이 옳다는 확인보다 너의 감상도 존재한다는 수용이 필요할 때다. 취향을 존중한다는 건 동의한다는 게 아니다.

존중은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에서 시작한다. 취향은 채점의 대상이 아니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이공계 인프라의 숙제

공간을 넘어 경쟁력으로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일손은 부족한데 자리는 더 비좁다”, “타 대학 연구실을 다녀오니 우리 연구실이 더 작아 보이더라.”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듣는 말이다. 밤낮없이 실험실을 오가는 연구자들은 부족한 연구 공간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연구 환경과 인프라 측면에서 타 대학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종로학원 임성호 원장은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경희대 이공계 분야의 대외적인 브랜딩마저 타 상위대학에 비해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최근 우리학교가 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예고한 점은 고무적이다. 공대분관과 미래과학관을 조성해 상당 부분을 공동연구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GPU센터와 양자플랫

폼 등 첨단 연구장비도 구축해 융합 연구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공학과 윤주영(전자공학) 교수 역시 “첨단분야는 융합연구가 많아 공동연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착공 소식이 알려진 분관과 달리 미래과학관 조성은 지지부진하다. 미래과학관의 경우 이미 2018년부터 논의됐지만 사업비 증가와 첨단장비 관리 등의 이유로 수차례 미뤄진 바 있다. 오랜 기간 지연된 만큼 미래과학관 착공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만 건물을 세우고 공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인프라 확충이 끝나지 않는다. 새롭게 마련한 공간과 장비를 연구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첨단장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냉각 설비, 화재 방지 시설은 물론 지속적인 유지·관리까지 뒤따라야 비로소 제대로 된 연구인프라가 되기 때문이다.

충분한 연구공간과 첨단장비가 실제 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다시 우리학교 이공계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만평 열악한 연구 환경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